

익산시, 세계적 식품수도 도약

美시장 공략 나서... H마트·aTLA지사·풀무원USA·코트라 돌며 수출 투자유치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적 식품수도로 성장시키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전략적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방문으로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식품기업들에 대한 사업확장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아시아 시장진출과 미국 식품기업 유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현을 시장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현지기준) 미국 서부 식품유통기관과 기업을 방문해 수출 확대를 위한 동향 파악과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정 시장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회

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익산시는 정현을 익산시장 최중요 시의회의장,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송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사업본부장,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등 12명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세일즈단으로 나섰다.

이들은 풀무원 USA, aT 미국지역본부 LA지사, H마트, KOTRA 실리컨밸리 무역관 미국 푸드테크 기업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상품 수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미국지역본부 LA지사에서는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정보조사 등 업무에 대한 논의 후 식품시장 현황과 수출 시 유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어 풀무원 그룹의 해외사업 전진 기지로 두부, 면, 만두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및 개발하고 있는 풀무원 USA를 방문해 미국 내 김치 수출시장 현안 진단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 미국에 농수산물·한인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H마트를 방문해 지난해 전북도 농식품 수출 MOU를 맺은 이후 현지인들의 시장 반응과 식품기업의 제품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공단의 효율적 관리 위해 특별회계 설치”

설경민 군산시의원, 5분발언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28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공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의 산단은 아직 관리 이전이 되지 않은 새만금 산단을 제외하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이 있으며 2022년도 기준 각 산단의 현황을 보면 국가산단은 면적이 약 2,018만㎡이며, 작년 한 해 886,310억 원을 생산하고, 1만2,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반산단은 면적이 약 564만㎡이며, 5만3,286억 원을 생산하고 7천명 이상을 고용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산단에서 발생하는 시·도세는 약 610억원 정도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본의원은 이러한 산단을 군산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하고자 한다”고 했다.

먼저 “산단의 효율적 관리는 기업 정주 여건과 인구 정주 여건으로 나

누어 관리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위한 군산시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단 각 중요기반시설의 전체면적당 연간 최소 예상 유지관리 비용이 실제 23년 올해 예산 반영액과 큰 차이가 있는데 실제 23년도 예산 반영률은 7.3%에 그치고 있어 이는 산단의 기반시설 관리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을 증액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산단이 군산시 면적의 23.3%의 면적일지라도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의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산단관리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전체 관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분포된 곳 즉 민원이 많은 곳으로 먼저 사용되어 우선순위에 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산은 인구증가를 위해서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군산의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경제와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군산형일자리 사업 등으로 앞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산단의 기업, 인구 정주 여건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 농산물 홍보탑 안정적 운영을”

한경봉 군산시의원, 5분발언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8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농산물 홍보탑의 안정적 운영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 3월,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지적한 성산면 소재 농산물 홍보탑 부지 임차료를 군산시가 20년간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군산시는 지난 2003년 성산면 여방리 서해안 고속도로변 아산에 농산물 홍보탑을 설치했다”며 “그러나 임차 계약을 한 토지가 아닌, 영평리 개도 옆 토지에 홍보탑을 설치해버리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시는 공작물을 설치하고 준공할 때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기본마저 저버린 후진적인 행정을 보여줬다”며 “이 결과로 군산시는 임차 계약을



맺은 토지주에게 올해까지 20년간 1,3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해왔고, 옆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꼴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년 전, 홍보탑 최초 설치 시 토지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행정 실수는 차치하더라도, 20년 동안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단 한번도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산시의 어이없는 행정이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할 행정기관에서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서도 안되고 사용을 할 것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잘못 지급한 임차료는 법률 자문을 구해보니 정당한 토지사용 승낙 후 고의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며 “시민의 혈세 1,300만원이 낭비되고 무단 점유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는 홍보탑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실사용 면적은 30평 정도인데 과도하게 넓은 약 100평의 토지를 임차해 과도한 지출을 해왔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진·해일 대응 재난안전통신망 합동 훈련’ 개최

행안부·군산시, 진포해양테마공원서 14개 유관기관 합동 재난안전통신망 훈련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긴박한 재난이 발생했음을 알렸다.

군산시 이청도 서남서쪽 123km 해저에서 규모 6.5 지진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지진해일이 군산을 덮친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이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내려오자 시는 지진해일로 인한 건물 붕괴와 도로파손 등에 대한 주의 안내방송을 실시했으며 기상청은 서해안 일대에 0.5m~1.0m의 지진해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동과 동시에 군산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현장 지휘 속에 관련 유관기관들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대응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해경, 소방, 군 의료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별 통신망을 일원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전국 단일의 무선 통신망이다.

28일 오후 2시 행정안전부와 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경찰, 해경, 소방, 군 의료기관 등과 합동 재난안전통신망 훈련을 실시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허전 익산부시장, 기재부 단계 ‘국가예산 확보 총력’

허전 익산부시장이 2024년 국가예산 1조원 시대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6월 초 정현을 시장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데 이어 허전 부시장도 28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관련 예산과장 등 정부 예산의 핵심 간부를 면담하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허 부시장은 관련 예산과장들을 만

나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백제 왕궁 금마역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금마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등 우리시 중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예산 반영 협조를 구했다.

이번 방문은 7월부터 시작되는 2차 심의에 대응미반영 사업과 과소반영 사업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 국가예산 부활의 물꼬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칫 누락될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세종사무소장을 중심 전북도는 물론 김수흥·한병도 지역 국회의원 등 기재부 심의 기간 동안 주요 중점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허 부시장은 “우리시의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불가결하다”며 “8월 말까지 이어질 기재부의 심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속박업 ‘친절·청결 착한 가격’ 실천 결의

대한속박업중앙회 익산시지부(지부장 김용만)는 28일 시지부 사무실(주현동)에서 명품관광스포츠도시 조성을 위한 속박업소 결의대회를 가졌다.

시지부는 속박업자부 지역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청결·착한 가격’ 실천을 슬로건으로 친절 서비스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고 가격 안정화 등의 결의를 도모했다.

참가 속박업자들은 익산 방문객을 제일 먼저 대하는 익산의 얼굴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더욱 친절하고 위생적인 서비스 실천을 약속했다.

또한 ‘2023익산방문의 해’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스포츠 선수단 학부모 등을 친절히 맞이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 제공으로 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을 다짐, 익산 방문의 만족도를 높여 버무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대야면, 폭염 대비 경로당 방문

군산시 대야면이 다가올 폭염을 대비해 지난 28일부터 2주간에 걸쳐 면내 50곳의 경로당을 방문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과 인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경로당 방문에서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전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에어컨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며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당면 업무로도 바쁘실 텐데 주기적으로서 정겨운 인부를 전해주시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은양 대야면장은 “해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과 장마로 어르신들이 개인 건강관리와 이웃 어르신들의 건강도 함께 챙기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르신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